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대책 촉구

서울시, 법규상 명시된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불이행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됐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 35개로 전통

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됨.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됨. 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소규모 무등록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광수/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남동구 구월1동 복합청사 등 방문

인천시 남동구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 지난 5일 남동구 구월1동 복합청사와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신청사로 이전한 행정복지센터와 운영을 새로 개시한 공공 시설이 대상으로 박 시장은 시설현황을 둘러보며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분야를 살펴보고 시설을 찾는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범 운영 중인 구월1동 청사 내 남동2국민체육센터 현황을 둘러보고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지역현안인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 시설 예정 장소를 방문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강호 남동구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 방문 장소였던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는 기존에 방치되다시피 했던 남동타워를



청년들의 예술 창작 장소로 탈바꿈한 곳으로 이날 녹음작업을 진행하던 청년들과 인천시와 남동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주민편의를 위해 새롭게 조성한 시설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해줘 감사하다"며 "남동구는 인천시와 함께 더욱 구민 행복증진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종찬 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코로나-19 상황 반영해 예산 편성해야"

6일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학생교육원이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예측임에도 2020년 대비 사업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학생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학생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교육원은 2020년 시설부과 야영장 비용이 많이 증액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야영장의 운영이 취소됐으며 일부 야영장은 코로나-19 대응 임시 생활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지속적인 예산사업이지만,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 기본운영 비용, 온라인 연수 비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을 삭감해 다른 복지예산이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야영장은 현장을 살펴봐야 하는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예산 총액 및 배분 등이 더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야영장을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협조해 사용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교육감께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사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진전 없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코로



나-19 이전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미래 교육2030 교육목표 자체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경기도학생교육원 및 야영장 운영 등에도 미래방향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찬/기자

안장현 충남도의원 "골프장 이용료 폭등...전수점검해야"

제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편법 운영 실태 언급...이용료 현황 파악 등 주문

감염병 정국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은 5일 제 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근 폭등하는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 점검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이용료를 회원제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편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해외 출국길이 막히자 때아닌 호황을 맞은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와 카트 대여비용 등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골프장 이용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



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충청권이 전국에서 골프장 이용료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골프장 납세내역이나 이용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산업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대중제 골프장 불

법회원 모집 여부와 면세혜택 부여 내역,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료 잔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골프 이용객들이 충남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발전 유 인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호/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복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양주시, 1000회 맞은 '양주시정뉴스'... 시민과 함께 걸어온 '30년'

양주시의 생생한 시정소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해 온 '양주시정뉴스'가 양주시민과 30년을 함께하며 6일 1000회를 맞이했다. 양주시정뉴스는 신속·정확한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 시청 내 감동제작소에서 자체 인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10분~15분 분량의 뉴스로 시정정책, 문화, 관광, 생활정보, 행사 등 시청 전반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90년 2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제작돼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쉬 없이 달려왔다. 창간 초기 월 1회 제작하는 월간 뉴스 형식으로 7개 읍면동 유선방송사에 녹화테이프를 제공해 지역유선방송채널에 편성·송출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월 2회로 확대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며 현재와 같은 주 1회 주간뉴스로 확대·개편했으며 인터넷, 전광판, IP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주시와 시민을 잇는 '소통 채널'로 성장했다. 특히 2003년 도농복합시 승격, 옥정신도시 개발, 양주역세권·경기강주 테크노밸리 개발, GTX-C노선 건설, 전철 7호선 광역철도 건설,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등 굵직한 지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했다. 창간 1000호를 맞은 시정뉴스는 현재 주요 시정정책을 비롯한 행정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담은 주간뉴스를 LG헬로비전 나라방송을 비롯한 케이블TV와 유튜브 공식채널, 양주시 홈페이지, 시청 내 멀티비전, 옥외 LED 전광판, IPTV 33개소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보도문 작성, 영상 촬영·편집 등 영상제작 전 과정을 자체인원으로 제작해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정뉴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능동적인 시정홍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30년간 시민과 함께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 노력해 온 양주시정뉴스의 10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1000회를 넘어 2000회, 3000회를 맞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굳건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시정방향인 신성장 활력 양주 조성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마음을 읽는 시정알리미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민기자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하기'

채사장 작가 초청 강연

군산시립도서관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시민독서아카데미 2020년 두 번째 특강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작가인 채사장을 초청해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강연회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현장참여 및 교양문화실 영상시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으며 도서관 방문 참여자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강의를 이어갈 채사장 작가는 역사·경제·정치·사회 등 전 분야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로 이번 강연을 통해 대중이 쉽게

인문학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녹여낸 다양한 인문학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주요저서로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열한계단', '우리는 인젠가 만난다' 등이 있으며 tvN *어쩌다 어른*, EBS라디오 토요일인문학콘서트 출연 및 팟캐스트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접수를 받아, 도서관 새만금드림홀 현장참여 40명, 도서관 교양문화실 영상시청 참여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산시립도서관 도서진흥계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군산시민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문학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독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드라이브스루로 즐겨요~영천별빛한우 한마당축제

온라인 판매를 통한 영천별빛한우 홍보

영천시와 영천축산농협은 오는 13일 14일 이틀간 영천별빛한우 한마당 축제 with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영천별빛한우구이축제를 대신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을 도입한 판매 및 소비촉진행사를 영천 시민운동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드라이브스루 행사로 차량 입장만 가능하며 영천별빛한우, 돼지고기, 꿀 등을 시중보다 최대 20% 정도 할인 판매한다. 특히 소분포기는 1일 1,000kg 한정으로 시중 대비 50% 할인판매할 예정이며 불고기, 떡갈비, 돼지고기, 우유, 계란, 꿀 등 축산물 시식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뿐만 아니라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영천별빛한우 쇼피몰에서도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행사기간 중 영천별빛한우 쇼피몰 가입 후 구매 고객은 최대 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특별 포인트 적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별빛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해 품질향상 및 홍보에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축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김 중의 김 고창 '곱창김' 본격 생산... '겨울철 밥도둑이 왔다'

고창군, 명품 지주식 곱창김 올해 첫 햇김 생산. 김자체의 품미가 뛰어난 프리미엄 김으로 평가. 청정 갯벌환경에서 영양분과 햇볕을 가득 담고 자란 곱창 지주식 곱창김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겨울별미'로 해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곱창 지주식 곱창 김이 올해 첫 생산에 들어갔다. 현재 곱창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은 조생종 품종 잇바디들이다. 생김 모양이 곱창처럼 구불구불해 '곱창김'으로도 불린다. 곱창김은 날씨 등 해황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고 약 1~2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만 소량 생산된다. 특히 일반김보다 달콤하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김자체의 품미가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고 프리미엄 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곱창 지주식 김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청정해역의 곱창 갯벌에서 생산된다.

하루 평균 낮 4시간, 밤 4시간 이상 김발을 노출 시켜 김 본래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국내의 1%도 안 되는 양만 생산되는 명품 종의 명품 김이다. 이에 고창군은 이달 말 '곱창 지주식 마른김 공장'을 준공하고 곱창 명품김 브랜드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옛 전통 방식의 재래김을 위해 자연 건조 환경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음용수 기준 적합한 정수시설 등이 도입된다. 원초와 제품 품질관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유기인증 대비 사전 테스트에선 양식장 수질환경이 양호하며 중금속이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로 확인됐다. 곱창군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곱창 지주식 김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김 양식 생산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성을 홍보해 세계 제일의 명품 수산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 온라인 축제 '놀면통하리로 ON' 개최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제 8회 청소년마당축제 '놀면통하리로 ON!'이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은 청소년마당축제 '놀면통하리로 ON!'은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양동의 대표 축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전행사로 딱치치기부터 글라스데코 등 다양한 시대별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체험마당을 진행했다. 선착순 100명이 신청 시작 10

분 만에 마감되는 등 지역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온라인축제 '놀면통하리로 ON'은 7일 Youtube채널 '꾸미TV'에서 생중계되며 사전 녹화된 청소년동아리, 재즈밴드, 비보잉 등 다양한 공연과 시청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선 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축제기획단이 기획한 이번 온라인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색다른 온라인축제인 만큼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강동구 전통시장 한마당 '장날 사랑' 개최

13일과 14일 양일간 6개 전통시장의 특화상품을 한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상권변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2020년 강동구 전통시장 한마당 '장날 사랑' 행사를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강동구청 열린뜰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전통시장 특성에 맞게 시골 장터 분위기의 컨셉으로 친근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주부대에서는 가을 밤에 어울리는 문화공연이 열리고 객석은 평상형으로 조성된다. 또한, 오후 8시까지 열려 야간조명도 알선구를 이용한 스트링라이트로 행사장이 아름답게 꾸며질 예정이다. 물론,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방역대책본부도 별도로 운영해 체온확인 후 입장,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기밀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과류, 떡, 장류, 두부, 젓갈류 등 강동구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물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명일전통시장 내에 조성되어있는 다문화음식점과 청년 점포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색 체험과 공연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다채로운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

해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매출감소에 대한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강동구 전통시장이 한데 모여 시장 고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데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규식기자

이재명 “실거주수요에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비거주주택은 강력규제해야”

도,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일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에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회주택·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해급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흑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소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제니스 애벗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 등 해외연사들이 ‘국제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한다.

이어 제2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과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대금 이사가 강연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제일 경기도 사회주택담당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박상찬기자



김포시, 한강 하천변 정화활동 실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한강이 하천정화활동으로 반짝반짝

김포시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 하천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 지난 4일 관내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떠밀려온 쓰레기들과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수거 위주로 진행됐으며 정화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양은 종량제봉투

100리터 150여 장에 달했다. 두차례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한강하천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로 가득 찼던 한강이 깨끗하게 변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하천의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깨끗한 하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시민 각자가 내 집처럼 깨끗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고 당부했다.

김영근기자



삼척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삼척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

은 2021년 5월 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청서 토지 사용 수의 권리 증명서류 등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준공 시 수질검사를

제출과 이행보증금 면제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해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된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산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충전방해 집중 단속

시흥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 급속충전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 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된다.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정 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

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인천 중구, 구민권의 침해하는 소극행정 특별점검 나서

11월 18일까지 소극행정 특별감찰 실시

인천 중구는 구민 또는 관내 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각종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소극행정을 특별점검한다. 이와 관련 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소극행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

무행태를 일컫는다.

구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초점을 맞춰 특별감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허가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감질행태,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의 실시와 더불어 소극행정을 혁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감찰이 공직자들에게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남원시, 가을철 산불방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남원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인력을 중심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하는 산불방지 위반행위는 1. 입산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 2.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폐기물소각 3.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이며 집중 단속에 따라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남원시는 주

요 등산로 입구,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대해 산불감시원을 등산객이나 입산물체취자가 많은 시간대 중심으로 감시원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할 계획이며 주변 주차 차량에 대한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해 산불방지 시 실화자 수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가을철 산불방지에 동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남승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 물을 검색하세요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 핫과
영양충분 만든 빛깔산 과기류
검색 사이소에서 만나다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용인교육지원청, 2020 접속 내사수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코로나 극복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등의 어려움을 공동수업연구, 수업나눔 등 교사공동체의 협업과 나눔을 통해 해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코로나 이후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 접속 내사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10.1. ~ 2020년 12.31.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 접속 내사수 프로젝트는 언택트 시대의 미래형수업 접속, 2020 접속 내사수 챌린지, 재야의 고수를 찾아라 등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언택트 시대의 미래형수업 접속은 2020 용인 미래형 수업혁신지원단이 코로나 19 이후의 미래형수업에 대해 관내 교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총 27명의 지원단이 2개 분과 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형 수업 및 교육과정 분과, 에듀테크 및 온라인 수업 분과의 2개 분과로 이루어져 쌍방향 수업, 원격수업 기자재, 블렌디드 러닝 수업사례, 원격-대면수업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11월~12월 사이에 각 팀의 연구결과를 4개의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2020 접속 내사수 챌린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학교 수업사

를 원격으로 용인 관내 선생님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참가교에 응원의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갑곡초, 구갈초, 서원초, 언남초, 풍덕초의 총 10개팀이 참여해 10월~11월 사이에 2020 접속 내사수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교육 좌충우돌 극복기, 수업사례, 원격수업 프로그램 등을 나누고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업자료를 챌린지 참가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

를 넘어 용인의 교사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셋째, 재야의 고수를 찾아라 는 아이디어와 경험으로 뭉친 우리 학교의 에이스 교사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의 수업 리더로서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사발굴 프로젝트이다. 현재 48명의 숨어있는 수업 고수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에듀테크, 블렌디드 수업, 전문직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우고 나누는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0 접속 내사수 챌린지에 참여한 서원초 김 00교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와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교사공동체를 통해 다 같이 미래수업을 열어나가는 점에서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교



육장은 "코로나로 인해 빨라진 미래 교육에 대해 우리 용인지역 교사들이 연구하고 서로 나누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앞으로도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미래형 교

사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지원할 것이며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서구, 제1회 스마트에코시티 컨퍼런스 개최

서구의 새로운 경쟁력, 스마트에코시티 구현 속도 낸다

인천 서구가 지난 5일 '스마트에코'를 통한 도시회복을 주제로 '제1회 스마트에코시티 온택트 컨퍼런스'를 열고 서구의 미래비전인 '스마트에코시티'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냈다. 이날 컨퍼런스는 2020 제22회 인천건축문화제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스마트에코시티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조 강연 및 주제발표자, 2020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구 유튜브 '서구TV' 생중계를 병행해 많은 구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하태석 총괄건축가의 '스마트에코시티'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그린 인천 개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인간중심 미래도시' 강연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는 송하영 중앙대 교수, 국영걸 이화여대 교수, 김영욱 세종대 교수, 엘로웁스 전 우치 대표, 모자이크테일러 석상목 공동대표 등 국내 대학교수 및 우수 전문가들이 스마트에코 요소에 대해 발표하며 '스마트에코시티' 구상에 풍성한 결을 더했다. 끝으로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하는 토론 한마당 순서에선 스마트에코 요소의 본질과 의미,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스마트에코시티를 구현하는 방법 등을 두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전문가구성을 통해 서구가 스마트에코시티로 가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며 "이번 '스마트에코시티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도시 공간환경 전체에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법을 도입해 '스마트에코시티 서구'를 구현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2020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랜선 통해 안방으로 전달돼

On-line 통해 7-80년대 '복고댄스와 그 시절 공연' 선보여

'2020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의 세 번째 마당인 그때그시절 'OLD TIME'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공동음에 위치한 근대박물관 '그때그시절'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부모세대의 추억과 향수의 공간을 청소년들이 공유해 부모세대를 이해하는 세대어울림 한마당으로 기획된 이번 어울림마당은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됐으며 7-80년대 근대사를 배경으로 복고댄스와 그 시절 노래 그리고 최근 유행 랩까지 랜선을 통해 안방으로 전달됐다. 안성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안성지부 그리고 공동주최기관인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청소년미래위원회 김성준 회장과 김서연 부회장의 사회로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등 14개의 동아리의 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초등학생 가수 하은·하린양

의 초청공연 등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레트로 감성 축제의 장은 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안성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근대사를 엿볼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근대박물관에서 그 시절에 유행하던 노래와 댄스공연, 복장 등을 입어보며 세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해 교육적인 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으로 승화한 것으로 방점을 찍었다.

행사를 진행한 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안성지부 미래위원회 김성준 회장과 김서연 부회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그때그시절 'OLD TIME'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대 생활사의 모습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모세대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고 반가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며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 희망통로를 이어가는 세대로 이번 안성시청소년어울림을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욕구발산과 부모세대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영상메시지를 보냈다.

김남주기자

오산시 102가지 체험교육 '징검다리교실 이웃축제' 개최

오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020 징검다리교실 이웃축제'를 개최한다. 1년 간 준비한 이번 축제는 공간대표와 시민활동가가 해당 징검다리교실의 특성을 반영한 102개의 체험과 교육을 직접 기획했다. 축제는 11월 11일 11시 세마동에 위치한 징검다리교실 '카페알리스'에서 '동글동글 빼빼로 마카롱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11월 24일 오후 3시, 대원동에 위치한 북엔모어 징검다리교실에서 '알록달록 풍선 가랜드 만들기'까지 2주간 총 102가지의 체험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징검다리교실은 2020년 신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은 하나로통합학습연계망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우리 집 앞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이웃과 함께 학

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다양한 학습모임이 진행되는 오산시 공유학습공간을 의미한다. 징검다리교실은 공간대표와 시민활동가 등 오산시민 150여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226회, 14,650시간, 41,824명의 오산시민이 오산백련시민대학 물음표학교, 느낌표학교 수업과 평생학습동아리 학습모임 등으로 사용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단 한 번도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웃을 찾아서 이웃과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축제로 시작했다. 이번 축제가 오산시 전역에 있는 학습공간인 징검다리교실의 의미와 가치를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박차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변화하고 혁신할 것”

김포시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2020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경기도내 16개 지방정부 중 13위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3개월 간 서울, 경기·인천 47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50대 남녀, 각 300명을 조사한 결과로 김포시는 지난해 조사결과에서 경기도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최하위에서 올해 3단계 상승하는 등 서비스품질 수준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품질 조사·분석, 개선과제 도출을 과업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결과 발표 이후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 직원의견수렴을 통해 공직자 명찰 패용, 민원안내원 민원실 배치, 통화 연결음 개선,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어 올해의 순위와 평가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시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 방식의 방문조사와 체계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10월~11월 중에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연구원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별 교육을 실시 중으로 직접 공직자 자신의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강하게 인지하게 하는 등 교육의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준 높으면서도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상황맞춤

형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 전 직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서비스 품질관리는 1회성이 아닌 중·장기 계획 아래 추진되며 시 조직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혁신해 격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주제로 개최된 11월 중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표준협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김포시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모든 직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근기자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 교통지도 변화, ‘남북 잇는 화합의 길’ 되길”

11월 6일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정식 개통은 다음날인 11월 7일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심상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등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 손태락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부터 파주시 문산을 내포리까지 연결, 연장 35.2km로 2015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0개월에 걸쳐 조성됐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5년의 결실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을 축하하리다”며 “이번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GTX, 그리고 대곡-소사선, 고양선, 인천2호선 등 그물망 같은 광역철도까지 발효된 만큼 5년 내로 고양시의 ‘교통지도’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 남부부터 북부까지 이

어지게 되는 112km의 남북 연결도 로망은, 장기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잇는 ‘화합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 관문도시인 고양과 파주가 이 통일의 희망을 가장 가까이서 잇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의왕시, 마음건강 프로젝트 ‘세심한 챌린지’ 운영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인 ‘세심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세심한 챌린지’는 씻을 세, 마음 심 그대로의 뜻을 담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기력과 우울감, 분노 및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발한 비대면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다.

‘세심한 챌린지’는 PC나 모바일 검색창에서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세심한 챌린지’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신의 마음 건강상태를 점검 후, 일상 속 나만의 챌린지를 실천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점검 결과가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정신건강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세심한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챌린지 참여 후 가족, 친구, 주변 지인에게 SNS로 공유를 하면 기프티콘이 발송되며 나만의 챌린지를 직접 실천한 뒤 후기 글을 작성한 시민에게는 스트레스 완화 아이템으로 구성된 ‘세심한 꾸러미’를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등 다

의왕 시민을 위한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
일상에 마음을 더하는
세심한 챌린지

세심한 챌린지는 무엇인가요?
씻을 세(洗), 마음 심(心) 그대로의 뜻을 담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의왕 시민을 대상으로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상성 회복을 위한 비대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세심한 챌린지” 진행방법

1. QR코드 스캔
2. 세심한 챌린지 시작!
3. 챌린지 카드 선택
4. SNS 공유
5. 후기 작성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 챌린지 완료 후 SNS 공유 시 기프티콘 발송
- 2. 후기글을 작성한 의왕시민 모두에게 ‘세심한 꾸러미’ 증정
- 3.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추가 이벤트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 의왕시 오봉로 34 의왕시보건소 병관 1층
전화: 031-458-0682 팩스: 031-458-0683

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김재복 의왕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세심한 챌린지’ 참여를 통

해 심리지원 및 마음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 협업 추진

곤충, 원예활동으로 치매예방에 도움 기대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 3개소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 7월 17일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치유농업·치매예방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게 됐다. 협의회를 통해 농업기술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농촌치유농장을 매칭 하고 치매안심센터는 관리대상자가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치유 농장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효과를 고려해 농촌치유농장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두 기관이 협업해 추진한 첫 프로그램은 지난날 19일 죽산면 소재 농장 ‘허브와 풍뎡이’에서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29일에는 치매환자



와 가족들이 함께 치유농장체험을 하며 마음의 치유와 가족 간 소통 등으로 힐링 나들이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과 16일에는 안성치매안심센터와 공동치매쉼터에서 곤충과 허브 맛보기, 허브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사업을 통한 치유농장 활성화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매안심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안성시 곤충, 식물 등 농업소재 가지고 치매증상 악화 방지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지리산 청정 '함양 명품딸기' 본격 수확 시작

게르마늄 토양·풍부한 햇살 속 입맛 사로잡아

함양군은 11월로 접어들면서 관내 주산지를 중심으로 새콤달콤 '함양 명품 딸기'의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게르마늄 성분의 토양과 풍부한 햇살을 먹고 자란 '함양 명품 딸기'는 111농가 50ha 규모로 연간 9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작목으로 단단한 과육과 풍부한 과즙으로 씹는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연간 200여톤 150만불의 수출이 이뤄지는 등 국내 농산물 경제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명품 함양딸기는 고설베드, ICT스마트용 복합시설 등 스마트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수확시기가 점점 앞당겨져 11월 초부터 오는 5월까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명품딸기 생산을 위



해 육묘부터 수확까지 딸기재배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스마트시설과 맞춤형 딸기재배 기술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딸

기재배 농업인들의 기술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굿바이, 코로나 & 파이팅, 코리아

온·오프라인 '사회적기업 기획상품특별전', 김해에서 열린다

김해시는 '김해시 사회적기업 기획상품특별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기획상품특별전'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인 단체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업종별 사회적기업 특별전 개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최된다.

온라인 기획상품특별전은 오는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김해시 소재 온라인 종합쇼핑몰인 천리마상사 홈페이지에서 개최되며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10~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기획상품특별전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김해 장유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야외주차장에서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우수한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G마켓 플랫폼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도 함께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들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구매 시 추천을 통해 LED등, 실내 클라이밍 강습권 등 다양한 경험도 제공된다. 행사관계자는 "이번 사회적기업 온·오프라인 기획상품 특별전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우리시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여

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대한민국 특정도서 제1호 독도의 연체동물 전 세계에 소개

'독도의 무척추 동물' 영문판 발간, 독도 생물자원 국제사회와 공유

경상북도는 독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연체동물 104종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 '독도의 무척추동물 연체동물 Invertebrates of Dok do Island Mollusks' 영문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독도 주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로 독도의 생물자원과 그 다양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자원관의 허가를 얻어 경북도가 영문으로 출판한 것이다.

자원관은 연체동물, 대형갑각류, 자포동물과 극피동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독도의 무척추동물' 시리즈 3종을 출간했으며 이 중 연체동물이 다양성과 자원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산 폭발로 생겨난 독도는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한반도 내륙과는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독도 주변 해역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훌륭한 서식처여서 환경부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 1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저자 김사흥 박사는 "독도 연안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훌륭한 서식처이지만, 접근성이 어려워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독도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연체동물 173종 중 104종에 대한 정보를 먼저 소개하게 됐다"며 "독도의 연체동물 중에는 소라와 흡합이 자원적 가치가 가장 높는데,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흡합군락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 흡합군락은 다른 생물들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

수산국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와 홍보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영토인 독도의 생물자원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제사회에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영문으로 발간했다"고 발간 경위를 설명한 뒤, "경북도는 앞으로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기록해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울릉도·독도의 육상 및 해양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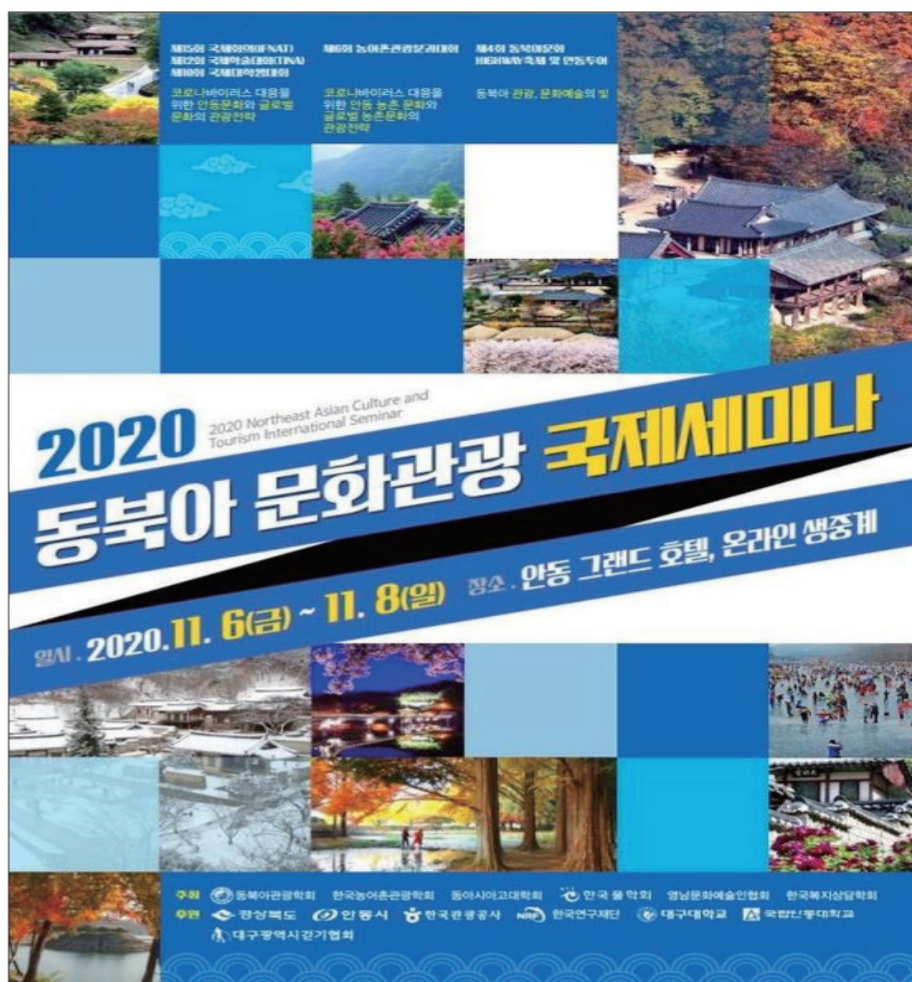
정홍호/기자

'2020 동북아 국제관광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동북아관광학회가 주관하는 '2020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세미나'가 11월 6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3일간 안동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이후 '경북 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관광 전략 수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동북아관광학회를 비롯한 6개 관련 단체의 관광 관련 전문가 및 대학생들이 참석한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장과 일본, 중국 등에서 송출된 온라인 영상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그랜드호텔 현장에서는 박규영 라오스문화원 원장의 '아시아 관광 경제에서 역사 연계의 중요성', 오송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의 '지역관광 정책과 성공사례 분석' 손병희 안동대 교수의 '이역사와 안동지역 문화관광' 등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그리고 일본에서 곤도유지 교수의 '지역 발전적 차원에서 농촌관광 상품의 중요성' 중국에서 다즈강 교수의 '한중일 동북아 관광네트워크의 신규축'에 관한 발표를 영상으로 접하며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삼고자 했다.

특히 학술대회 참여 차 안동을 방문한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서포터즈들이 안동관광 투어 영



상 발표회를 열어 이를 동북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인식하고

안동 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김해시, 집콕가족힐링캠프 운영

관내 초등 90가족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김해시는 오는 28일 집콕 가족 힐링 캠프 "STAY STRONG"을 운영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테이 스트롱은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건너내자'라는 문구가 들어간 캠페인 로고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로 코로나 19를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족 힐링 캠프는 워크스루 방식으로 초등학생 90가족에게 힐링캠프 꾸러미를 제공한다.

꾸러미는 집과 관련된 보드게임인 토크유집, 가족 얼굴 쿠키 만들기 키트,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피켓, 가족 레크리에이션 참여 물품으로 구성된다. 가족 레크리에이션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운영하며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매 시각 30가족씩 줌화면공유기능을 통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각 시간별 우수 가족 3팀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힐링캠프 꾸러미는 오는

25~26일 오후 4~7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배부른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기부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주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지난해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힐링 걷기 여행에 참여한 가족들이 다시 그때를 그리워하며 즐거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이번 힐링 캠프를 기획하게 됐다"며 "연젠가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울감을 극복하고 워드 코로나 시기를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진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11월 7일부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울진군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시행은 그동안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에 의해 시설·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 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각종 고·중·저 위험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로 재정비해 기본 방역수칙 및 필요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에 따른 추가 수칙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오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중점 시설을 확대해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찬걸 군수는 "중앙정부의 설명도 있었듯이 이번 개편조치가 수 기증만 보고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이라며 "개편된 방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홍호/기자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으로 수도물 신뢰도 제고



진주시가 5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상의 수질로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진주시는 노후된 정수장을 정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신뢰받는 수도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면지역의 정주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한다.진주시는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통합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17억원을 투입해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진주시는 올해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558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558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70~80년대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제1·2정수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이산화되어 환경부에서 시행한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며 올해 6월 '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시는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상수도 통계자료와 수도시설 운영관리자료 등을 분석하고 시설물의 노후도를 진단해 시설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수장 소독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기계, 전기, 계측제어 설비 등 개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시설 현대화 및 시설운영의 일원화로 깨끗한 수도물 생산과 공급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율이 낮고 누수가 잦은 광역상수도 공급 읍·면지역에 노후 수도관을 정비해 누수발생, 이물질 유입을 방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해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진주시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한다.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2년까지 124억원의 사업비로 자동 수질 측정장치, 관로 내 여과장치, 재염소 설비 등 수질관리 시스템과 자동드레인 설비,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시스템 등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수용가별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미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과학적인 수량·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관리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도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주시는 대곡면 지역의 정주환경과 하천수질 개선

을 위해 2022년까지 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1일 처리 용량을 1900톤에서 2850톤으로 950톤 증설하고 이와 병행해 하수관로 미 보급 지역 608가구에 하수관로 50.5km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대곡면에는 면 전체 물 사용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시설인 진주교도소가 있다.최근 재소자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로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작년보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시는 하수처리시설의 적기 증설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재원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 2022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공중위생과 하천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처리장 증설과 병행해 분류식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옥내 배수설비를 정비함으로써 악취 저감은 물론 정화조 청소비용 및 설치비용 절감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경북교육청, 2021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

도내 26만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경북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회장은 6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다.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는 당초 고교 무상급식을 '20년 고3, '21년 고2~3, '22년 고1~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 실시하게 됐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 260,831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학교별 적정 식품비 보장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당초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통합단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항목별 구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감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치에 따라 급식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하되, 고1 식품비는 2021년에 한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80%, 6%, 14%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내년 무상급식은 인건비 1,653억, 운영비 296억, 식품비 1,207억 등 총 3,15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급식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교 규모별로 식품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급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도내 각급학교를 학생 수 기준으로 9개 구간으로 나

누어 학생 수가 적은 상위 4개 구간은 기존 식품비 단가에 5%씩 가산해 지원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하위 4개 구간은 기존 식품비 단가에 2.5%씩 감해 지원한다.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고우현 도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경북교육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영양군,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공모사업 선정

임산물 카페 유유자작 조성사업

영양군은 영양군 죽파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임산물 카페 유유자작 조성사업'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산림청의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공모사업은 국·공유림 등 산림과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해 귀·산촌인, 산촌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비 2.2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억원을 확보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물 카페 조성, 임산물 활용 식품 개발 등 프로그램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이 사업은 임산물이 우수한 국유림 생태경관 자원인 영양 자작나무숲에 대한 관광자원화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추진됐으며 기 확정된 국토교통부 영양 자작나



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및 산림청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 자

작나무숲은 언택트 관광의 명소로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림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포항 용한리 해변, 서핑 명소로 태어난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해변을 국내 서핑 명소로 육성한다.포항 용한리 해변은 겨울철 파도가 좋아 서퍼들 사이에서는 서핑에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신항만'으로 불리는 경북의 유명 서핑지이다.용한리 해변은 방파제의 측면 부분에 형성되어 있어 서퍼들의 서핑 장면은 사진에 담기 용이하며 동행한 가족 및 일행들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간 용한리 해변은 이런 명성과 걸맞지 않게 샤워장, 탈의장, 쉼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나, 도와 포항시가 협력해 내년까지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홍보 조형물,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서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서퍼 비치의 측면에 있는 방파제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서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서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경북도는 용한리 해변에서 국제 서핑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제적인 서핑 명소로 발전시키고 경북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경상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국내 서핑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발 맞춰 포항 용한리 해변을 전국 최고의 서퍼 비치로 조성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위드코로나시대, 미드나잇인순천

청정·힐링·가족여행이 가능한 야간관광을 통해 머무는 순천관광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 및 경기 부양 방안으로 지난 6월 12일 '2020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하고 '야간관광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야간관광 지출액에 따른 관광객 직접 지출 효과는 3조 9천억원, 고용효과는 4만명,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야간관광의 개념과 해외사례 야간관광이란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 콘텐츠, 축제 등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야간경제로 직결된다.

이미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가 비수기 타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야간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16년에 야간경계위원회를 조직해 야간을 관리·운영하는 야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경계구역도 선정했다.

미국 뉴욕은 야간문화 주도 관리 부서를 두고 '영원히 잠들지 않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야간관광으로 1인당 약 400~500위안을 사용하며 야간공연, 야경에 대한 수요가 높다. 춘절기간 동안 야간관광 경험은 92% 수준이다. 야간관광을 주목하는 이유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밤에 놀고 운동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야간형 인간'의 증가로 심야 소비가 늘고 있다. 지속적인 1인당 관광지출액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이는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숙박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업활동을 촉진하며 코로나로 위축된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야간관광의 매력은 한정된 낮 시간을 확대시키며 낮 시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야간관광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 의존형으로는 전망 타워, 미술관, 박물관 관람 등이 있으며 경관 관람

형으로는 야간경관, 불꽃놀이, 야간 축제 등이 있다. 체험 활동형으로 공연, 콘서트, 야시장, 문화재 야행, 시티투어 등이 있으며 유흥형으로 노래방, 나이트클럽, 실내스포츠, 사우나 등이 있다. 정부에서도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 야시장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평 강동 야시장, 전주 남부 야시장,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등이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4월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순천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또 한 번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국외보다 국내 근거리 여행으로 밀집·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 활동을 선호하면서 레저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일상관광을 즐기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코로나에 안전한 청정지역을 찾고 있다. 순천시는 연간 1,000만명이 찾은 대표적인 생태문화관광 도시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618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최고의 야외 생태 관광지이다. 이외에도 노을이 아름다운 와온해변은 캠핑과 차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은 힐링 관광지로 꾸준히 방문객이 찾고 있다.

올해는 예기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 수는 10월 기준 31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62% 급감하였지만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접어들면서 순천만 습지는 평일 6천여명, 주말에는 2만여명이 찾고 있다. 앞으로 2곳만 억눌린 관광 욕구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코로나로 인해 바뀐 관광 트렌드로 순천과 같은 청정, 힐링, 가족여행이 가능한 지방도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순천시는 이와 같은 야간관광의 수요 증가와 위드코로나시대에 맞추어 머무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야간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다. 먼저 2018년부터 추진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야간경관사업을 둘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야간개장을 위해 동문과 서문 WWT 습지 주변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꿈의 다리에서부터 출렁다리, 용당교 일원 6km에 이르는 동천 교량과 벚꽃 산책로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내년에는 미설치 교량 5개와 벚꽃 산책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동천 저류지에는 24만 5000㎡의 생활 숲과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한다. 다목적 광장에는 야시장과 플라마켓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야시장을 야외 숲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내에 있던 야시장의 밀집과 밀폐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3월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클린 야시장 만들기 위한 쓰레기 처리와 친환경 용기 사용, 오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동천 야간경관사업과 인근 야시장 조성은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공간이자 사업이다. 또한 내년에는 드라마촬영장 재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야간 체험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의 거리에서 매년 개최하는 문화재 야행 이외에 순천 대표

문화콘텐츠도 제작한다. 2023박람회 기간 상설 공연을 목표로 현재 작품 소재를 공모하고 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1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관건이다. 순천시는 대규모 호텔보다는 소규모 가족형 호텔을 유치할 목표를 하고 있다.

한 달 살기나 농촌체험, 산사체험, 숲 체험 등 생활형 체류상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집거형 여행자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나 장기임대방안도 강구한다. 야외 레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캠핑, 차박 등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는 이러한 야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늘려 야간관광과 주간관광과의 연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류시간도 늘리고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영화 '미드나잇 안 파리'에서 주인공 길 펜터는 밤 12시 종이 울리면 파리의 거리에서 마차를 탄다. 주인공 길이가 탄 마차는 1920년대 파리로 주인공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 예술가를 만난다. '미드나잇 인 순천'이 우리를 예술의 황금시대로 데려가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함께 하는 이와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이남출/기자

가수 임영웅 광주·전남 응원방, 지역사회에 나눔 실천

회원 350여명 성금 모아 사회복지기관에 쌀·커피면 전달

광주광역시시는 6일 가수 임영웅 응원방 '영웅시대'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이 광주지역 사회복지기관 60곳에 쌀과 커피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웅시대' 회원들은 가수 임영웅의 신곡 발표와 콘서트 개최를 맞아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430만원을 마련해 10kg 쌀 120포와 커피면 120박스를 준비했다. 영웅시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쌀과 커피면은 이날 오후 광주지역 아동그룹홈 35곳,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5곳에 각각 전달됐다. '영웅시대' 회원들은 앞서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일 때도 헌혈 봉사 활동을 펼치고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응원하는 간식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강미정 영웅시대 광주·전남지역 응원방장은 "회원들이 가수 임영웅의 신곡 발표와 콘서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화환을 보내는 것보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후원하는데 뜻을 모아줬다"며 "앞으로도 영웅시대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으로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호 행정부시장은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줘 감사드린다"며 "따뜻하고 의미있는 응원문화가 사회공헌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무안군, 친환경 갯벌 지주식 햇김 본격 출하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친환경 갯벌 지주식 무안 햇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해저면에서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갯벌에서 자란 친환경 돌김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돌김은 내년 4월까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조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당질, 비타민A, 칼슘, 요오드, 철분을 다량 함유한 현대인의 필수 웰빙식품이다. 또한 타우린 등 필수 아미노산과 생리활성 물질인 포르피린 함유되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피를 맑게 해주고 성인병과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특히 무안산 돌김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에서 지

주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해수유동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청정해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맛과 향기가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채묘상태가 좋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환경이 좋아 출하 초기부터 고품질의 물김이 생산되어 첫 위판가격이 120kg 1척당 28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넓은 황토 갯벌에서 햇빛과 해풍을 맞고 자란 무안 돌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소가 풍부하다"며 "전통적인 친환경 지주식 양식으로 생산된 무안 돌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식/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참석

농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 정책 제시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11월 5일 '지방정부가 함께 한국판 뉴딜 동행 선언'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에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사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와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성공의 한 축인 지역형 균형 뉴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좌장으로 전동평 영암군수, 안승남 구리시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현중 한국

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동평 군수는 그린뉴딜 주요 정책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촌지역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주민참여형 신재생 태양광발전 확대공력발전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 경관농업의 확대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그린뉴딜사업 추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전동평 군수는 포럼에서 "도시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그린뉴딜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농어민의 실



질적인 소득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이고 뉴딜 정책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기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조정해 국가 정책을 주민에게 잘 이해시키고 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곡성군, 유튜브 활용 비대면 청소년 성장박람회 화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2회 곡성군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박람회는 사전 영상 제작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박람회로 진행됐다.

박람회 첫째 날 학생들은 사전 제작 영상을 각 학급에서 시청했다. 곡성군 마을학교 4개소와 함께 제작한 영상을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시화, 컬러링북, 캐릭터 펠트 가방, 토란 인절미 만들기 등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

년까지는 창업동아리와 내그린학교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 및 모의 투자대회 등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했다.

교육에 앞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유근기 이사장과 허성균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망 게임을 패러디한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의투자대회에는 창업동아리 5개팀이 참여했다. 투자설명회의 방식으로 각 팀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의 투자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청소년 자율동아리 내그린학교는 11팀이 각자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박람회 이튿날에는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간 스트리밍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영상을 통해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펼쳤다.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13팀이 참가했으며 실시간 시청과 채팅을 통해 다른 청소년과 군민들이 함께했다.

인구 3만이 안되는 작은 시골인데다 처음으로 진행된 온라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조회수가 2천회를 넘겼다. 어울마당에 참여한 곡성고 댄스 동아리 팀원들

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성장박람회 덕분에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무대를 서게 돼서 정말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 관계자는 "온라인 성장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민관학이 함께 오랜 시간 고민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활동 및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10.30 - 10.31

제2회 곡성군 청소년 성장박람회

창업동아리 · 마을학교 · 내그린학교 · 온라인청소년어울마당

WOW!!! 온라인 박람회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 전남남도곡성교육지원청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 곡성청소년성장지원단

전라북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광역자치단체 소통대상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

전북도가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광역자치단체 소통 부문에서 대상 수상하며 청년친화 우수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해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다 나은 청년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상하는 상이다.

선정위원회는 청년위원 100명과 교수, CEO, 언론인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정책과 입법, 소통, 지원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가 심사 기준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과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축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에 대한 제안부터 기획까지 참여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전문가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정책과 관련한 구체성을 높여왔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정책포럼단 운영을 통해 청년사업 발굴과 함께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꾸준히 제공했다. 이외에도 올해 5월 개소한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도내 청년에게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 체계 강화와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전북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인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앞으로 청년 유관기관,



시군 등과 협력해 8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분투하고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연내에 개정해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완료해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없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올해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전북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소통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농촌자원·경관 사진전시회 개최

제2회 남원시 농촌자원·경관 사진공모전 결과

남원시는 농촌마을의 활력 넘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누구나 찾고 살고 싶은 농촌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2회 남원시 농촌자원·경관 사진공모전"을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공모결과에 따른 수상작 전시회를 11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개최한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남원의 농촌자원·경관이나 농촌의 일상을 담은 사진 총 200점을 접수했다. 심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시 지부에서 공정하게 진행해 최종 수

상작으로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4점 등 38점을 선정했고 입상자에게는 대상 50만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5만원 등 소정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사진전시회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전시일정을 대폭 축소해 2회 개최될 예정이며 전시회 일정은 남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2020년 11월 9일 ~ 11월 20일까지,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2020년 11월 21일 ~ 12월 6일까지 총 4주간 진행하게 된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자원·경관 사진 공모전을 추진해 농촌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변화하는 농촌마을을 기록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마을 만들기 인문학적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전북도, 주민주도 사업으로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가치실현에 앞장서

전북도가 6일 2020년 제2차 전라북도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정무역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정무역사업 추진현황 청취와 함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품평회가 진행됐다. 현재 도내에는 전북도의 지원으로 2개 단체와 3개 자치단체에서 공정무역 기반 조성 및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강연, 컨퍼런스,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공정무역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공정무역 원료와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공정무역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은 공정무역 원료와 결합 가능한 도내 생산품, 농산물을 조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공정무역 제품을 개발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시제품에 대한 상품성과 가격, 개선점 등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완성한 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

다.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및 전문가 소그룹 강의를 내년에는 조기 개최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정무역제품 개발 및 생산·판매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무역제품의 다양화와 민간부문 유통·판매의 채널 확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자구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농민,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보금 전북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북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저개발국가는 우리보다 더 힘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가치 있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가치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군지역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2020년 마이산 산약초타운 걷기 행사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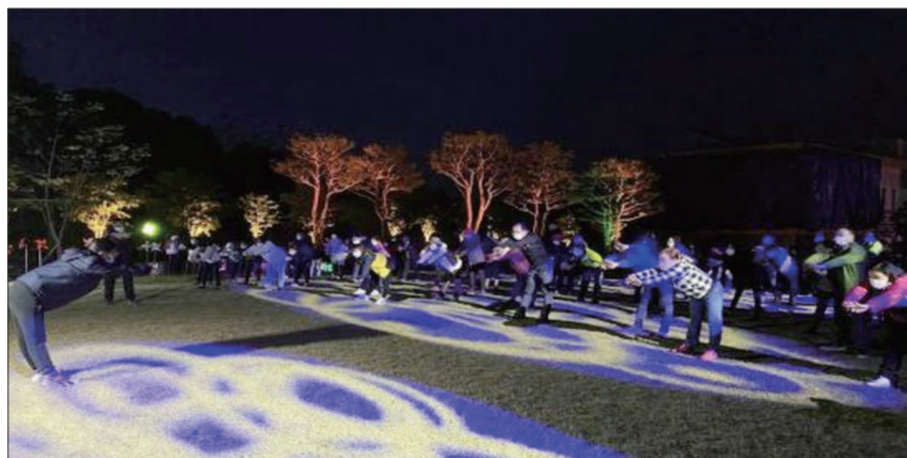
2020년 마이산 산약초타운 걷기 행사가 지난 5일 많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종료됐다.

진안군체육회으로 진행된 걷기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접제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5일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1,500여명의 군민들이 참가했다.

제2차 군민걷기 행사는 산약초타운의 아름다운 전경을 배경으로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됐으며 걷기 후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지급하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 경품추첨 및 가을음악회를 실시해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특히 5일 걷기행사는 생활문화동호인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되어 공예체험, 동호회

회원들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듣는 즐거움까지 선사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올 한해 다들 지치고 힘든 시기였다 군민들에게 산약초타운 걷기 행사를 통해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안군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체육회 정봉은 회장은 "걷기는 코로나시대에 가장 적합한 생활체육 활동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어 만족하고 앞으로 진안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철기자



부안군, 성동일·하지원 주연 영화 '담보' 19일 무료 상영

부안군은 인기배우 성동일·하지원 주연의 영화 '담보'를 오는 19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매달 셋째주 목요일을 무료영화 상영의 날로 지정하고 무료로 영화를 상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시 중단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무료 상영을 재개한다. 영화 '담보'는 인정사정없는 사채업자 두석과 그의 후배 종배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열혈결투 9살 승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빛을 받으러 갔던 사채업자 두석과 종배가 우연히 한 아이를 담보로 맡게 됐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공감을 자극한다. 여기에 전작 '하모니'로 사람에게 대한 따뜻한 통찰력을 입증하며 수많은 관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안겼던 강대규 감독이 다시 한번 섬세한 연출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에 충분하다. 군 관계자는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12세 이상 선착순 입장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입장시 발열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좌석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고 자가 문진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영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미래혁신산업도시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비전 선포

성공적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비전선포·협약식 개최

천안시가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혁신산업도시로의 변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다짐으로 '열정과 상상으로 혁신은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는 도전,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천안시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의 성공을 염원하는 비전선포식 및 협약식을 6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지역 국회의원, 천안시의장과 시의원, 지역 대학 총장, 관계기관 및 충남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 43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천안 그린 스타트업 파크 선정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격려사, 축사, 조성계획 발표에 이어 운영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축하메시지를 듣고 함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나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어 중기부와 충남도, 천안시는 천안 스타트업 타운 조성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요예산 및 사업연계 방안 지원,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으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은 반듯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 모델을 삼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정밀의료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을 집중 육성·육성으로 미래산업에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 소재 인근 대학과 협업체 관련 공동 연구 및 융복합, 네트워킹과 창업기업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 등 실질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창업기업, 유망 중소기업들이 더불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천안역세권을 중심으로

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산업·문화·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건립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이노스트 타워인 지식산업센터 2개동을 이용하게 된다.

도시재생어울림타워에는 1층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해 2~5층 ICT 복합 허브센터, 5~18층 소호 창업형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노스트 타워에는 1~2층 생활 SOC, 3층 아이디어센터, 4~5층은 정밀의료 R&D시설, 6층 그린 모빌리티, 7~11층 스타트업 파크, 12~20층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다.

개방형 공간인 공유오피스, 회의실, 카페 등으로 구성된 기업과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천안 스타트업 타운은 부처 협업을 시행되는 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자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트업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탄생하는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주인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스타트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실적인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스타트업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제2의 벤처 붐'...혁신창업타운 성공 이끈다

천안 역세권에 833억 투입...복합공간 및 그린 스타트업 500개 유치

충남도가 대한민국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혁신창업타운 공간을 천안 구도심에 조성, 그 비전을 대내외로 선포했다. 도는 6일 천안시청 로비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상돈 천안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후 도심지에 중소·벤처기업을 집중화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중심 복합 공간의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 9월 전국 공모를 통해 충남 천안을 '그린 스타트업 타운'으로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신규 선정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천안역세권인 천안 서북구 와촌동 일원에 2022년 11월 준공된다. 이곳은 상업 월드뷰경관 빌딩의 약 2배 규모이며 복합연구시설과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해 스타트업



500개 유치를 목표로 개발된다. 도는 이 지역을 영국 런던의 도시 재생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를 모델로 삼았다. 특히 발전 가능성이 큰 구도심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업지원과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년까지 총 833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목표는 유니콘 기업 2개·예비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고용 유

발 1만 5000명 등이다. 유니콘 기업은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설립한지 10년 이하인 스타트업을 뜻한다. 양승조 지사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사업 창출의 요람인 충남 그린스타트업 타운에 대한민국 그린뉴딜 스타트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옥천군, 비상주단체 '예술' '춤추는 아리랑-꽃피우리라' 선보여

옥천군은 올해 옥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비상주단체로 선정된 '다원문화예술공동체연구소 예술'의 전문용 공연인 '춤추는 아리랑-꽃피우리라'를 오는 7일 선보인다.

공연 '춤추는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이 담긴 노래인 아리랑을 아름다운 전통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1부 역사속의 아리랑에서는 역사속의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을 승무와 꽃춤으로 표현했고 2부 우리아리랑에서는 갑춤, 장구춤, 경고춤으로 우리민족의 힘을, 3부 춤추는 아리랑에서는 힘든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의지를 태극 부채춤과 창모놀이 그리고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아리랑과 팝핀 댄스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7월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창작공연 작품과 함께 비상주단체 예술에서 두 번째 공연되는 작품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사전 신청한 150명의 관객이 관람한다.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공연 영상은 11월 16일부터 옥천군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공연을 관람한 한 주민은 "우리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공연이었다"며 "아리랑과 함께해서 더 감동적이었다" 말



했다.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올해 공연장 비상주단체로 예술이 함께하면서 공연의 장르가 다양해 졌다"며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계룡시, 부부역량강화챌린지 '찐 부부의세계' 성료

부부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계룡시는 관내 부부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부부생활을 위한 부부역량강화챌린지 '찐 부부의세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찐 부부의세계'는 계룡시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센터는 상징적 의미를 살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 주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했다.

계룡시 부부 20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찐 부부의세계는 바쁜 일상과 대화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둘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부부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친화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꽃을 전달하는 '사랑은 은하수를 타고' 의사소통유형검사 및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마음 꽃 피우기' 부부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행복을 찍어드립시다' 데이트를 하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부부헬스 워킹챌린지 '해피만보'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사랑의 꽃배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여성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남편에게 꽃 선물을 했다"며 "가장으로서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한 남편의 희생을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찾아가는 행복사진관의 한 참여자는 "사는게 바빠 아내와 결혼사진도 못 찍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내와 추억할 수 있는 사진도 찍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희원 센터장은 "부부간 대화와 소통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건강한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황간면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공모 선정 "황간을 썸하다"

110여억원 투입,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올벙이 국밥거리 조성

충북 영동군은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제2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으로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영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 최우선지역으로 지정된 황간역 일원이 대상지이다. 지난 2018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민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3년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동향을 수시로 살피고 지역전문가 자문 등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꾸리도록 지원한 군의 노력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황간면 도시재생사업은 황간터미널 부지에 주민공동체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2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한국도주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한다.

지역특색을 살리고 지역자산을 활용해 행복공동체를 나눠, 마을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황간을 썸하



다'로 공모명을 정했다. 그 밖에 주택정비사업, 지역유산 리모델링사업, 올벙이 국밥거리조성, 마을관리사업 육성 등이 진행된다. 공모사업 투자 17억원 및 민간투자 9억원을 포함해 총 110여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여러 요인으로 침체되었던 도시가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에 부족한 생활사회간접자본의 거점시설이 확충되고 그 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주민소득증대 등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고향 역 문화 플랫폼을 지역의 거점으로'란 주제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황간면 소규모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역광장 소규모 공연장 조성 및 철도음악회 등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황간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역량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서산 아라메길 걷어보자 비대면 걷기여행 인증하면 소정의 상품이?

산과 바다 산책길 걷자, 구간별 해설영상 관람도 QR코드로 가능

서산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비대면 서산아라메길 걷기여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10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법은 정해진 서산 아라메길 걷는 모습을 인증하면 되며 1회에 한해 충남 농사랑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1코스는 불교순례길, 2코스는 천주교순례길, 3코스·4·1코스·코리아둘레길77코스는 가로림만 해양정원길 펼쳐진 청정 바닷길이다. 1곳을 방문해 걷는 사진을 본인 SNS에 인증한 후 아라메길 걷기여행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인증하면 된다. 단, 개인 SNS가 없을 시 5개의 코스 모두 사진을 찍어 인증해야한다. 아라메길 구간에서 가변 휴대폰 QR코드를 이용해 스님, 신부님,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영상을 통해 길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만큼 많이 참여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란다"며 "산과 바다가 만나는 아라메

길을 걷고 서산시의 아름다움 담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상희 봉화군의회의원, '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정활동 우수사례' 생활정치부문 우수상 수상

봉화군의회 김상희 의원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 '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 생활정치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맑은 정치, 생활 정치, 성 평등 정치를 모토로 하는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의 연대 단체로 지난 2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시상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책만 보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아이들이 뛰놀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요구하고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속한 봉화군 아이들의

복지와 경쟁력의 수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교복복지의 인프라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배달강좌제,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치에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상희 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덕분에 오늘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봉화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충주시, 설채현 수의사 초청 반려동물 문화특강 개최

오는 27일 오후 3시 시청탄금홀에서 '반려견과 행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 특강

충주시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시청 탄금홀에서 설채현 수의사를 초빙해 반려동물 문화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설채현 수의사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수의사 최초로 미국 KPA에서 동물 훈련법인 클릭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SBST 동물농장,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

다. 설 수의사는 '반려견과 행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1월 9일부터 충주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충주시청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90명을 모집한다.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탄광지역 위기 극복위해 폐특법 개정 필요"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시도, 반드시 막아야"

구충곤 화순군수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폐광지

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신정훈·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성철경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강원도 폐광지역 발전방안' 발표로 시작, 폐광

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역사와 특수성을 언급하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역시 납부율을 인상하고 기금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특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영안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2020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수상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평화정책 주도적 추진 공로 인정받아

정하영 김포시장이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이 주최하는 '2020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은 아시아 국가 간 우호증대와 문화협력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지자체, 교육, 지역개발 부문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은 지난 25년 동안 아시아 20여 개 국과 문화경제 교류, 기업인 글로벌마케팅, 지방자치단체 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는 단체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 평화선

도도시 김포'를 표방하며 평화교류팀 신설 남북평화교류를 위한 조례 제정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시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건의 북한이탈주민 및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김포평화포럼 개최 한강하구 생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평화로 개설 추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김포평화문화관 개관,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 주도로 평화정책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실효적인 평화정책 마련과 실천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유동균 마포구청장,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와 함께 아현시장 방역활동 나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4일 오전 6시,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 회원들과 함께 방역활동을 위해 아현시장에 모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방역활동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를 중심으로 주 3회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의 방역을 실시해왔으며 6월부터는 구 전 지역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이른 새벽부터 방역활동에 나선 유구청장과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 회원들은 아현시장 및 주변 골목을 꼼꼼히 방역했다. 방역 작업을 마친 유 구청장은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에 힘



써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에 감사드린다"고 자율방역대 회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

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최영호 거창부군수,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현장점검

최영호 거창부군수가 6일 거창 향노화힐링랜드를 방문해 직접 시설물 안전관리 및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서 최영호 부군수는 지난 10월에 개통한 Y자형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성사업 현장에서 직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및 '자생식물원'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향노화 힐링랜드가 거창군 관광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사업추진

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에 위치한 거창 향노화힐링랜드는 국내 최초 'Y'자형 출렁다리를 비롯해 치유요수, 자생식물원, 숲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거창 향노화힐링랜드는 지난달 24일 Y자형 출렁다리의 개통 이후 일일 평균 1,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휴일이면 평균 5,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인용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그리다

악성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교향곡 제5번 '운명' 등 연주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오는 8일 오후 5시 대공연장에서 '백건우 with TIMF 앙상블-기도'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남도민들을 위로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는 세계적인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한국 음악의 미래 TIMF 앙상블, 소통과 공간의 마에스트로 장윤성이 함께한다.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난 백건우는 1956년 10살의 나이에 김생려가 지휘하는 해군교향악단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데뷔했다. 이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연주회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15세에 콩쿠르 참가를 위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위대한 계보를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사사했다.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오른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피아노 연습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를 사람들은 '건반위의 구도자'라 부른다.

2001년 창단된 TIMF 앙상블은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레퍼토리 개발과 참신한 기획으로 연주 영역을 넓혀왔으며 기획공연 '사운드 온 디 엣지', 'TIMF 앙상블 아카데미'를 통해 젊은 작곡가 및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주요 음악을 국내에 한발 앞서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이너 괴벨스, 하인츠 홀리거 등 유명 작곡가 및 연주자와 꾸준히 협



업하고 있으며 알반 베르크 '보체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살로메' 등 다수의 한국 초연 오페라 무대에서 관객을 만났다. 지휘자 장윤성은 서울 예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과 비엔나 국립음악원 지휘과에서 수학했다. 난곡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중앙콩쿠르, 동아콩쿠르에 입상했고 러시아 프로코피에프 국제지휘자 콩쿠르 2위와 일본 동경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했다. 세계적인 작곡가 펜데레츠키에게 한국 정부가 위촉한 교향곡 5번 'Korea'를 유럽에서 초연했으며 동경에서 매년 열리는 5000명의 합

창단이 부르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회 초청 받기도 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피델리오 서곡 피아노 협주곡 제4번 교향곡 제5번 '운명' 등 베토벤의 곡들로 진행된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의 부제가 '기도'인 만큼, 코로나19로 정신적인 피로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TIMF 앙상블이 선사하는 베토벤의 곡들로 가을밤의 낭만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다독이다" 신명나는 놀이판 열려

12일 저녁 7시 예올마루 대극장,
호남여성농악보존회 명인 유순자 협연

코로나19로 지치고 공연에 목마른 시민들에게 화려했고 흥겨움이 가득한 놀이판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연주회가 찾아온다.

여수시는 오는 12일 저녁 7시 예올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시립국악단 제3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다독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여수시립국악단 단원 38명과 여수시립합창단 44명, 호남여성농악보존회 명인 유순자 등 외부출연자 24명이 출연한다.

이날 여수시립국악단은 역동적인 동살풀이 장단을 시작으로 웅장한 스케일로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고구려의 훈'과 무속리듬·재즈풍의 스윙 등 다양한 리듬으로 흥을 돋우는 '남도아리랑'으로 국악 관현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다. 무속음악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진혼'은 여러 종교를 뛰어넘어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곡으로 여수시립합창단과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무대는 호남여성농악보존회 유순자 명인이 구성한 판굿으로 소고 장구, 부포 개인 놀이로 이어져 40여 분의 시간이 잘나로 느껴질 만큼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분



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후 끝을 맺는다.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약자, 학생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호남여성농악보존회

명인 유순자와 함께하는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통해 잃어버린 흥과 열정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가을의 낭만 피아니스트 김정원 The Autumn Song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 음악세계시리즈 II

안동문화예술의전당 11월 브런치 콘서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 음악세계시리즈 II '가을의 낭만 피아니스트 김정원 - The Autumn Song' 공연이 오는 11월 11시 백조홀에서 열린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의 브런치 콘서트는 100명으로 관람을 한정하고 다양한 콘서트 상설시리즈 공연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설 공연이다.

이번 하반기 시리즈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남성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시리즈로 연주자의 음악세계를 통해 클래식과 함께 하는 그들의 삶과 철학,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 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다.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로맨틱 클래식 아티스트로 정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이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 국립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엘레나 롬브로 스테파노프 피아노 콩쿠르 1위, 뱌젠도르프 피아노 콩쿠

르 1위,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국내 및 해외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감성에 흠뻑 젖을 수 있는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등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소품들로 구성하며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감성적인 선율을 선명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브런치 콘서트는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만원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확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2020 청소년 진로콘서트 job多 개최

"세상은 넓고 직업은 다양하도"

경주시 아동청소년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콘서트 잡다'를 개최한다. 이번 진로콘서트는 전문직업인 강연자와 청소년이 소통하며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참여형 토크쇼' 형식으로 다음의 4가지 주제로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불어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진로 체험 부스 운영 등 진로를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로 펼쳐진다. 청소년 진로 콘서트 job多는 경주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11월 오후 6시까지 100명 내외의 참가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진로콘서트가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퓨전국악콘서트 '숨'

김덕수 사물놀이패, 김준수,
김나니 등과 함께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는 11월 기획공연 퓨전국악콘서트 '숨'이 오는 12일 19시에 공연을 선보인다.

사물놀이로 전 세계와 호흡하는 거장,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해 가장 실력과 무대 매너를 겸비한 신세대 국악인 김준수, 국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는 소리꾼 김나니, 국악과 양악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센트럴팜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화려한 출연진에 걸맞은 최고의 국악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나 이번 공연은 어렵고 무거운 국악이 아니라 친숙하고 활기찬 음악 위주로 관객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공연으로 출연자별 창작 및 가장 원곡은 물론 대중음악, 퓨전/창작 국악 등이 다양한 레퍼토리로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는 음악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릴레이식 공연을 지양하고 출연자가 공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하나의 콘셉트로 만들어진 공연이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김영호/기자



함양군, 저물어가는 가을 신명나는 판소리 한마당

14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서 신
풍류 소리극 '연꽃이 피다' 공연 개최

저물어가는 가을 함양군에서 신명나는 신 풍류 소리극 한마당이 열려 군민들에게 힐링을 선물한다.

함양군에 따르면 경남도가 주최하고 함양군과 박선희판소리연구소가 주관하는 2020년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신풍류 소리극 '연꽃이 피다'가 오는 14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심정전을 모티브로 국악계 최고의 실력과 소리꾼들이 참여한 '신 풍류 소리극 연꽃이 피다' 공연은 우리의 전통인 민요와 판소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국악 창작가와 연주자를 통해 기존의 고루한 국악 공연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감성을 공유하는 명품 국악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리꾼과 무용, 연주자 등 모두 30여명의 스템이 참여하는 해설이 있는 흥겨운 국악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관람은 거리두기를 위해 지정좌석제로 200명 한정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전화예약 및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흥겨움과 옛정취가 느껴지는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공연으로 삶의 생동감과 감동을 선

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한컴그룹 양지면에 방위산업·첨단산업 시설 조성

용인시, 송문일반산업단지 내
6만㎡규모...한컴라이프케어·
한컴로보틱스 등 입주

용인시는 6일 글로벌 ICT 기업 한컴그룹이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85번지 일원 송문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방위·첨단산업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엔 한컴그룹 계열사인 소방안전용품 전문회사 한컴라이프케어가 1만8000㎡에 4개동 규모로 자리해있다.한컴그룹은 이곳에 총 사업비 146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약 6만㎡에 한컴라이프케어 제조공장을 증설하고 한컴로보틱스 제조공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컴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으로 지난 2002년 설립해 2009년엔 국내 최초로 전신해설사 로봇인 '큐레이팅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엔 로보월드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한 유망기업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섬유제품이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작을 비롯해 전자제품, 기계 장비 관련 업종 등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컴라이프케어에서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컴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엔 백근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우준석 한컴라이프케어 대표, 오병진 한컴헬스케어 대표, 전동욱 한컴로보틱스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컴그룹은 지역 주민을 우

선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백 시장은 "ICT 융복합기업인 한컴그룹의 첨단산업시설 조성은 용인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산업시설 부지를 완공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노원구,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바이오의료 혁신 중심지로 도약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 노원구청에서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노원구 혁신 성장산업의 거점이 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착수 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는 오는 9일 서울대병원과 창동차량기지 등 일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은 11월 9일 오전 10시 노원구청에서 오승록 구청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실무T/F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남양주로 이전이 확정된 창동차량기지 등 일대 25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병원과 관련 기업, R&D 연구소 등을 유치해 바이오의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노원구와 서울시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또한, 노원구와 서울시, 서울



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 주요 기업 및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맞춰 구도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바이오·의료, 혁신 클러스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향후 서울시 구상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김연수 병원장은 "바이오의료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육성여력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 중 하나"며 "서울대학교병원도 바이오의료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베드타운 노원의 유일한 개발 가능지로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희망"이라며 "세계적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성공적인 바이오의료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마케팅 어려움 겪는 에코디자인 기업을 찾습니다'.최대 1000만원 지원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창의적인 에코디자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키는 창업 공모전-마케팅 편'을 연다.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에코디자인 분야 기업이며 창업 3년 이상 기업 또는 광명시 기업은 우대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기업 8팀을 선정해 팀 당 최대 1000만원의 마케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원금은 브랜드 개발비, 온라인 광고비, 해외 마케팅비, 제품 포장, 디자인 개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앞으로 공간,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에코디자인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업사이클 에코 콘텐츠 특화 산업의 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마케팅이 필요한 에코디자인 기업 모집

지구를 지키는 창업 공모전 - 마케팅 편 -

2020. 11. 4(수) ~ 11. 18(수)
총 지원금 8,000만원

환경오염을 줄이는 창의적인 에코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기업
* 우대 사항
창업 3년 이상 기업 또는 광명시 기업

공모대상
1)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무상 지원
2) 우수 기업(2팀) 선정하여, 기업 당 지원금 1,000만원
* 다양한 마케팅 항목으로 사용 가능
세부 항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2020. 11. 18.(수) 15시까지 신청서 이메일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공지사항 공고문 참조

문의처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02-2680-6968 / gmhub@naver.com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기부채납 협약 체결

11월 9일 오후 3시
원주시청 투자상담실

원주시와 강원도향교재단, 원주향교는 오는 9일 오후 3시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다.

원주시는 역사와 현재가 공감하는 원주향교 일원 도시 정비를 통해 지역 문화재 위상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주향교 앞 역사공원 조성, 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등 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원주향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난 5월 향교재단 재산 처분에 관한 원주향교 유림 임시총회 및 강원도향교재단의 동의를 거쳐 10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향교 소유 토지 총 24필지 8,206㎡ 가운데 도로 및 주차장에 편입되는 16필지 2,268㎡는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역사공원 및 전통문화교육관에 편입되는 8필지



5,938㎡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 원주시가 해당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써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법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금 외에도 공시지가 금액만으로 약 32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김효열 원주향교 전교는 "그동안 관계 기관의 많은 노력과 협의 과정을 통해 추

진되는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원주향교가 향후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 승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원창목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